

조사보고서

2022-4

2022년 4/4분기

# 기업경기전망조사 분석결과

2022. 10



## I. 조사의 개요

### 1. 조사목적

- ◆ 여수지역 제조업체의 경기전망을 조사·분석하여 역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, 정부 및 시·도 지자체의 경기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음.

### 2. 조사기간, 조사방법

- ◆ 2022년 3/4분기(7, 8, 9월) : 실적기간
- ◆ 2022년 4/4분기(10, 11, 12월) : 전망기간
- ◆ 조사기간 : 2022. 9. 26. ~ 2022. 10. 11. (휴일제외 10일)
- ◆ 조사방법 : 설문지 조사

### 3. 조사대상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상시 종업원 15인 이상의 제조업체 186개사
- ◆ 응답개수 : 61개 (설문지 회수율 : 32.8%)

### 4. 조사내용

- ◆ 전반적인 체감경기(경기실적 및 전망)
- ◆ 경기 변화에 따른 기업 부담과 대책 상황 등

### 5. 집계·분석

- ◆ 회수된 조사표를 각 항목별로 집계·처리

### 6. 기업경기 실사지수(BSI)의 작성방법

- ◆ 경기조사 및 항목별 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간의 실적과 예측을 각각 전 분기 및 전년 동기와 대비하여 호전(상승, 증가),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 하였음.

기업 경기 실사지수(BSI)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작성하였음.

$$\text{기업경기실사지수(BSI)} = \frac{\text{증가(+)\표시업체 수} - \text{감소(-)\표시업체 수}}{\text{총 유효 응답 업체 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= Business Survey Index (0 ≤ BSI ≤ 200)

- ◆ 따라서 BSI의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때는 호전(상승, 증가)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(하락, 감소)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때는 그 반대를 나타냄.

## II. 2022년 4/4분기 기업경기 전망

### 1. 종합전망

#### 가. 개황

- ◆ 여수지역에 소재한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(설문지 회수 : 61개, 회수율 : 32.8%)으로 2022년도 4/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,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는 ‘73.8’로 조사되었음.
- ◆ 이중, 석유화학 연관업종(n=34개)만을 대상으로 한 경기전망지수(BSI)는 ‘70.6’임

#### 나. 항목별 경기전망 지수

#### 【종합 (N =61)】

구 분 항 목	전체	
	2022년 3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2년 4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체감 경기	60.7	73.8
매출액	62.3	80.3
영업이익	57.4	67.2
설비투자	91.8	98.4
공급망안정성	72.1	78.7
공장가동여건	67.2	78.7

**【석유화학 연관업종(N=34)】**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2년 3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2년 4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64.7	70.6
	매출액	73.5	82.4
	영업이익	64.7	67.6
	설비투자	100.0	111.8
	공급망안정성	82.4	88.2
	공장가동여건	76.5	82.4

**【일반업종(N=27)】**

구 분	항 목	전체	
		2022년 3/4분기 실적 (전 분기 대비)	2022년 4/4분기 전망 (전 분기 대비)
	체감 경기	55.6	77.8
	매출액	48.1	77.8
	영업이익	48.1	66.7
	설비투자	81.5	81.5
	공급망안정성	59.3	66.7
	공장가동여건	55.6	74.1

**2. 설문 결과 분석**

- ◆ 2022년 4/4분기의 여수지역 경기전망지수(BSI, n=61)는 ‘73.8’로 조사되었다. 응답 개수 : 61개 (설문지 회수율 : 32.8%)
- ◆ 이는 기업경기 체감지수 기준 값(前분기 대비 다음분기의 기업경기 체감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기준 값)인 100보다는 작은 값으로 “부정적”인 결과다.
- ◆ 2022년 3/4분기 하락세를 보였던 체감경기 추이는 2022년 4/4분기 상승세로 전환되었다.
  - 89.4(2019년 3분기)→ 70.6(2019년 4분기)→ 94.1(2020년 1분기)→ 73.2(2020년 2분기)→ 58.0(2020년 3분기)→ 44.1(2020년 4분기)→ 65.2(2021년 1분기)→ 91.5(2021년 2분기)→ 83.8(2021년 3분기)→ 89.3(2021년 4분기)→ 88.4(2022년 1분기)→ 97.1(2022년 2분기)→ 62.3(2022년 3분기)→ 73.8(2022년 4분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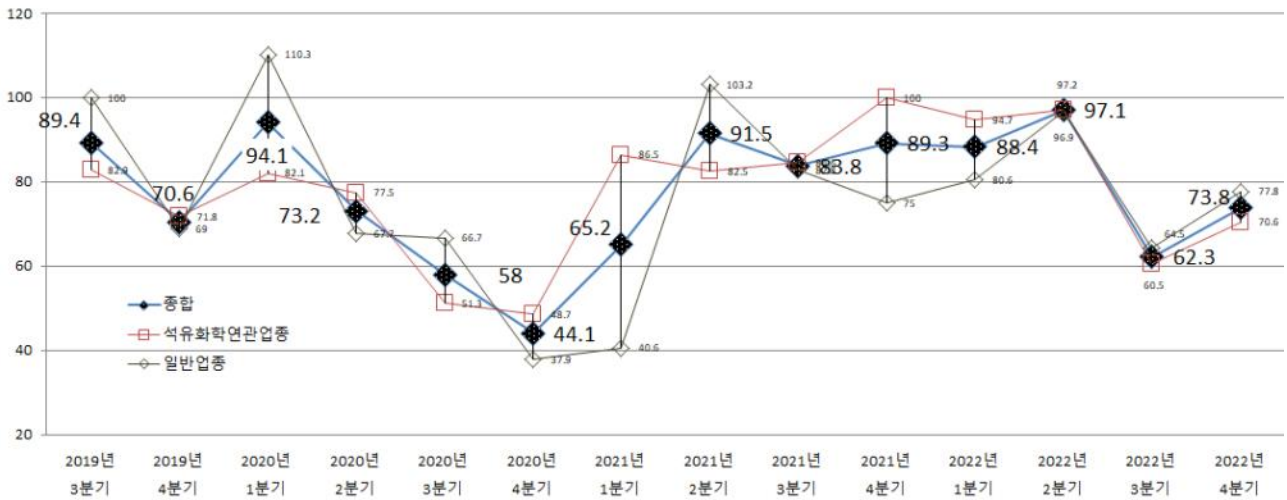


그림 BSI 추이 (2019년 3/4분기 ~ 2022년 4/4분기)

- ◆ 조사결과, 유가 소폭 하락과 코로나19 진정국면에 따른 대면시장 활성화와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지난분기 대비 11.5 상승한(62.3 → 73.8) 경기전망지수를 기록했다.
- ◆ 업종별로는,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분기대비 10.1 상승, 일반제조 업종은 지난 분기대비 13.3 상승하면서 업종에 구분 없이 상승한 경기전망지수를 나타냈다.
  - 석유화학 연관업종 : 60.5(22년 3/4분기)→70.6(22년 4/4분기), 10.1 상승
  - 일반제조 업종 : 64.5(22년 3/4분기)→77.8(22년 4/4분기), 13.3 상승
- ◆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우,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산유국의 생산능력 제한 등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가가 소폭 하락 하면서 제품 스프레드가 상승하였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로 인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지난분기 하락 추세에 있던 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. (60.5 → 70.6)
- ◆ 일반제조업종의 경우, 지난분기 코로나19의 재확산세로 위축되었던 대면시장이 감염자 감소 등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내수 및 대면 소비가 회복 추세에 있고, 연말 소비심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 지난분기 하락추세에 있던 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.(64.5 → 77.8)

- ◆ 이번 체감경기조사는 업종을 불문하고 하락세에 있던 경기전망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결과를 나타냈으며, 향후 유가의 등락과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.

### 【경기전망조사 세부 항목 조사결과】

- ◆ 「귀사는 2022년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」 라는 질문에 “1.5% ~ 2.5%(34.4%)” = “2.0% ~ 2.5%(34.4%)” > “1.5% 미만(23.0%)” > “3.0% 이상(4.9%)” > “2.5 ~ 3.0%(3.3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귀사의 금년 실적이 올해 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?」 라는 질문에는 “목표치 달성·근접(52.5%)” > “목표치 미달(45.9%)” > “목표치 초과(1.6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귀사의 금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는 무엇입니까?」 라는 질문에는 “원가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불안(34.0%)” > “환율 등 대외 경제지표 변동성 심화(21.1%)” > “금리 인상 기조(17.7%)” > “인플레이션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(8.2%)” > “주요국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(6.8%)” > “대출기한 만료 등 자금 조달 어려움(6.1%)” > “미중갈등 등 공급망 리스크(2.7%)” = “기업 부담법안 등 정책 리스크(2.7%)” > “기타(0.7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현재 귀사의 자금 조달 수단은 무엇입니까?」 의 질문에 “은행·증권사 차입(45.1%)” > “내부 유보자금(30.1%)” > “정부지원금(9.7%)” > “주식·채권 발행(8.0%)” > “사금융 차입(4.4%)” > “기타(2.7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비중이 늘어난 자금 조달 수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?」 의 질문에 “은행·증권사 차입(53.4%)” > “내부 유보자금(26.0%)” > “기타(12.3%)” > “정부지원금(4.1%)” > “사금융 차입(2.7%)” > “주식·채권 발행(1.4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
- ◆ 「현재 귀사의 가장 주요한 자금 조달 목적은 무엇입니까?」의 질문에 “임대료·인건비 등 고정비용(45.6%)” > “설비투자 및 사업 확장(25.0%)” > “채무 상환(19.1%)” > “기타(5.9%)” > “자산 투자(4.4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귀사는 현재 자금 사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」의 질문에 “보통(45.9%)” > “어려움(31.1%)” > “양호(16.4%)” > “매우 어려움(4.9%)” > “매우 양호(1.6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
- ◆ 「귀사의 자금 운용상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무엇입니까?」의 질문에 “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(52.3%)” > “환율 상승으로 외화 차입 부담 증가(14.8%)” > “금융대출·자금조달 관련 규제(10.2%)” = “기타(10.2%)” > “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(8.0%)” > “정책지원 자금 축소(4.5%)” 순으로 조사되었다.